

# 사회발전 이론들의 비교연구\*

정 대 연\*\*

## 목 차

1. 연구목적
2. 사회발전 이론들의 출현과정
3. 사회발전 이론들의 개요
4. 사회발전 이론들의 설명력의 한계
5. 요약 및 토론

## 1. 연구 목적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변동의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화한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의 양이 많고, 그 질 또한 깊다. 사회변동은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에 질서가 있고 또한 어떤 유형을 띠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어떤 사회현상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다. A상태이던 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B상태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변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변동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변동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 시간적 간격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사회변동의 양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변동은 조그맣고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 크고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변동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얼마나 깊게 일어나는가라는 변동의 규모의 문제이다. 이외에 사회변동은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 이 논문은 1990년도 제주대학교 자체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수 있는데, 이것은 변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변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변동의 길이(시간적 간격), 변동의 규모(변동의 폭과 길이) 및 변동의 성격(변동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변동은 19세기 초기 사회학이 하나의 독립과학으로 형성되면서 사회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학의 기본적 관심이 되어 왔다. 초기 사회학에서는 사회변동(social change)과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 사회변동은 단순히 시간적 간격에 따른 사회구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인데 반해, 사회발전이란 보다 나은 상태로 사회구조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발전은 사회변동과는 달리 가치 부가적 개념이다.

사회학에서 사회변동 또는 사회발전에 관한 이론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회발전 이론만 다루기로 하겠다. 먼저 사회발전 이론들을 망라적으로 고찰하고, 각 이론들의 개요를 비교함으로써 각 이론들의 설명력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학에서도 사회변동 또는 사회발전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략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회발전 이론의 소개 또는 비판이고(보기를 들면 고영복, 1975; 차인석, 1975; 황성모, 1975; 이만갑, 1982; 염홍철, 1983; 박재묵, 1984; 진덕규, 1984; 김경동, 1979; 1984b; 1985a; 1985b; 1986; 유석춘, 1989), 둘째는 한국사회의 변동 또는 발전의 분석이고(보기를 들면 이만갑, 1980; 1982; 김지형, 1982; 1982; 최협, 1982; 박영신, 1983; 신용하, 1983a; 1983b; 임희섭, 1983; 1984; 김성국, 1984; 김경동, 1979; 1980; 1984a, 1986; 조순, 1985; 안충용, 1986; 양중희, 1986; 왕인근, 1986), 셋째는 사회발전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보기를 들면 김영모, 1978; 김진균, 1983; 김일철, 1985), 넷째는 서양사회에 기초하여 정립된 사회발전이론이 한국사회에도 적용 가능한가의 검증이고(보기를 들면 오갑환, 1974; 임현진, 1983; 1985a; 1985b; 한상진, 1985; 양중희, 1985; 유석춘, 1985), 다섯째는 발전가치에 관한 문제이다(보기를 들면 임희섭, 1973; 1982)이다. 그러나 사회발전 이론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각 이론들의 설명력과 한계를 비교분석한 글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 2. 사회발전 이론들의 출현 과정

Kuhn(1970)이 그의 과학혁명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학적 패러다임(paradigm)은 주어진 시대에 과학자 공동체에 의하여 용납되고 보편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으로서 각 시대에 따라 지배적 패러다임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사회적 맥락의 지배적 형태가 다르다는 역사성 때문에 동일한 문제에 대한 지배적 패러다임이 시대

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발전 이론도 시대에 따른 사회적 맥락의 역사성에 의해 지배적 패러다임이 달라져 왔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발전 이론들의 출현과정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9세기 초 사회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시작될 때 생물학의 진화론이 단순히 생물학 이론으로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적 풍토의 지배적 세계관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지적 패러다임 속에서 초기 사회학자들은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회변동은 보다 나은 상태로 향한 진화적 과정으로의 발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사회진화(social evolution)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초기 사회학에서의 사회발전 이론을 고전 진화이론(classical evolution theory)이라고 부른다. A. Comte의 3단계 진화이론(신학적 단계→형이상학적 단계→실증적 단계로의 진화), H. Spencer의 군사형 사회(militant society)에서 산업형 사회(industrial society)로의 진화, E. Durkheim의 분절사회(segmental society)에서 조직사회(organizational society)로의 진화가 그 보기들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물질적 생활이 풍요해지고, 개체의 자율성의 증가로 사회생활의 구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사회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라는 기술적 적응성(technological adaptability)이 핵심적 문제거리가 되어 새로운 가치관념과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였고, 하나의 전체로서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 간의 통합과 유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Hoogvelt, 1986 : 109-110). 이러한 역사성 속에서 20세기에 와서는 신진화이론(neo-evolution theory)이 나타났다.

신진화이론은 기본적으로 고전 진화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전 진화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사회생활이 점차 복잡해지는 과정을 사회진화라고 보고, 이것을 사회구조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보기를 들면 S.N. Eisendadt(1964)는 고전 진화이론은 지나치게 法則的·單-線的 모형에 집착함으로써 구조변동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진화론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주요 사회적 기능인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교육적 기능 등이 서로 분리되면서 동시에 또한 동일한 제도적 체계 안에서 조직화되는 것을 중시하면서 이것을 구조의 분화와 통합 과정이라고 하고,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발전이라 하였다.

고전 및 신진화이론은 선진사회, 개발도상의 사회 또는 후진사회에 관계없이 사회발전에 관한 일반적 이론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는 후진사회, 특히 제 3세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발전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Hoogvelt, 1986 : 1-2). 2차 대전 이후 많은 신생국이 생기면서 세계질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서 냉전체제로 돌입하였고, 선진국들 가운데도 어떤 나라는 발전의 속도가 빠르는데 비해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쇠퇴 또는 정체상태에 있었다. 특히 신생국들은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세계질서 속에 편입되었고, 과거 중주국의 문화적 유산을 그대로 지니면서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과거 중주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제 1세대로, 선진 공산주의 국가를 제 2세대로, 그리고 후진 자본주의 국가를 제 3세대로 지칭하면서 제 3세계의 사회발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제 3세계의 사회발전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는 구조기능주의와 결합한 자유주의 전통(liberal tradition)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이론과 결합한 마르크스주의 전통(Marxist tradition)이다. 이 두 전통에 기초한 이론이 사회발전에 대한 본격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전통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형성되었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는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후발효과이론(outcomer effect theory) 및 세계미래이론(world future theory)이 나타났다. 특히 근대화이론은 사회발전에 대한 초점에 따라 경제발전론, 정치발전론 및 구조분화론(structural differentiation theory)으로 나누어진다.

반면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세계체계이론(world system theory) 및 생산양식이론(mode of production theory)이 나타났다. 특히 종속이론은 제 3세계의 발전 또는 저발전에 대한 초점에 따라 저발전심화이론(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종속적 발전론(dependent development) 및 신종속이론(new dependency theory)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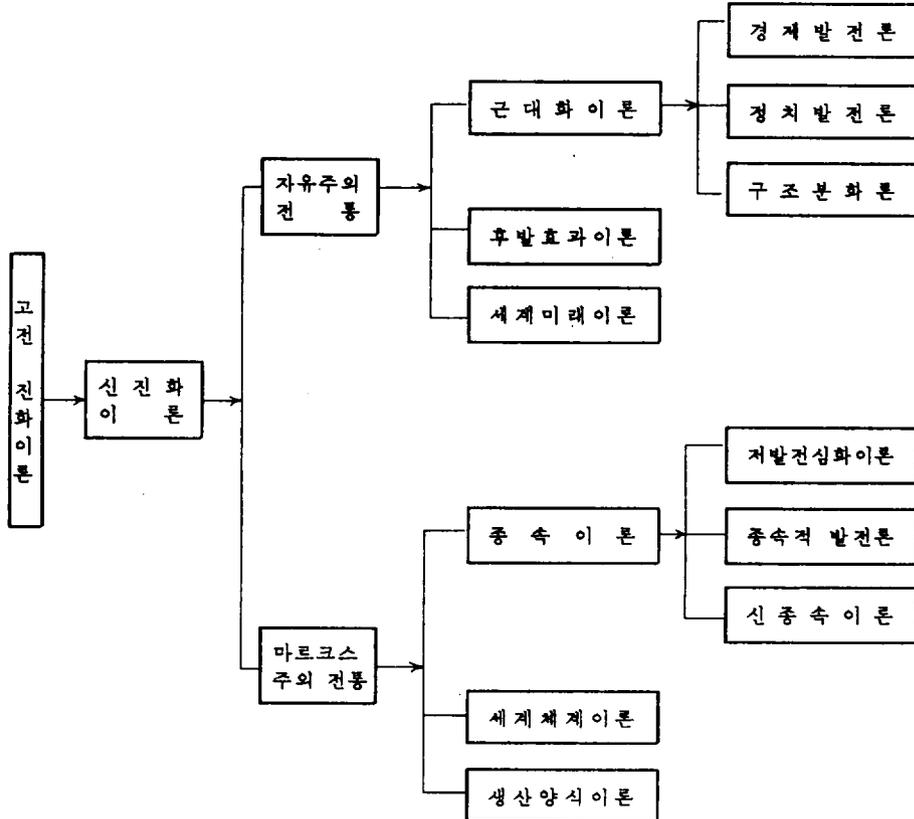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발전 이론은 각 시대의 역사적 특성에 기초하여 시대별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출현하였는데 그 계보를 도표로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 3. 사회발전 이론들의 개요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발전에 관한 본격적 이론은 자유주의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전통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유주의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각 이론의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유주의 전통이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화론적 관점에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결합한 것이다. 진화론적 관점이란 앞서 설명한 Comte, Spencer, Durkheim 등의 二分法的 개념인데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분업화하고, 분업화는 다시 전문화를 가져옴으로써 단순사회에서 복잡사회로 성장한다는 관점이다. 이들은 이러한 진화과정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내부의 필연적 과정으로 보았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이란 사회를 구조분화와 기능적 통합으로 보는 관점이다(Parsons, 1964). 즉 사회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체계이고, 이 전체적 체계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조의 분화이다. 그러나 각 부분은 별

〈그림 1〉 사회발전 이론의 계보



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능적 연관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곧 기능적 통합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을 설명하는 것이 근대화이론, 후발효과이론 및 세계미래이론이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란 마르크스 이론의 기본 개념들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생산양식이다. 인간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을 하고, 이 생산에는 노동, 토지 및 기술의 세 가지 생산력이 필요하며, 이 세 가지 생산력을 조합시키는 사회조직이 생관관계이다. 이들 생산력과 생관관계가 생산양식을 구성한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이 생산양식의 개념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적 착취의 조건·성격·메카니즘·결과에 대해 학자들 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견의 차이로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의 사회발전 이론이 종속이론, 세계체제이론 및 생산양식이론으로 나누어진다.

## (1) 근대화이론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의 학자나 정책 입안자가 신생국의 발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된 것은 순수한 학문적 관심이나 인도주의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관심은 동·서 냉전의 와중에서 서로 자기 진영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목적도 있었고, 선진 산업국가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신생국의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경제적 요구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근대화 이론가들은 신생국들의 사회발전은 서구보다 前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구의 경험, 정치, 경제 혹은 사회제도에서 신생국의 발전모형을 찾으려 하였다.

근대화 이론가들은 신생국의 발전문제에 前근대와 근대, 또는 전통과 근대라는 양분법적 모델을 설정하고, 이 두 이념형의 차이를 밝히려 하였다. 이 양분법적 모델은 진화론적 관점이고, 이 두 이념형의 차이를 밝히려는 데는 구조기능주의의 유형변수(pattern variable)를 사용하였다. 이해를 도우기 위하여 행동양식과 제도적 특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유형변수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구조기능주의의 유형변수

前근대적 속성(전통)	근대적 속성(근대)
특수주의 (particularism)	보편주의 (universalism)
기능적 광범위성 (functional diffuseness)	기능적 한정성 (functional specificity)
귀속성 (ascription)	업적성 (achievement)
집합주의 (collectivism)	개인주의 (individualism)
감정성 (affectivity)	감정적 중립성 (affective neutrality)

출처 : Parsons, 1964 : 101-1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는 근대화이론은 초기 사회발전 이론인 진화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통 발전이론(orthodox development theory)이라고도 하고(Phillips, 1977), 전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의 분화와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

합모델(integration model)이라고도 한다(Smith, 1974).

그러나 근대화이론에서 무엇이 근대화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보기를 들면 Eisenstadt(1973)는 한 사회가 구조를 유지하고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근대화라고 하였다. Bendix(1977)는 근대화란 때로는 사회적 및 정치적 발전을, 때로는 산업화와 문명화를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근대화의 기본적 요소는 산업화라고 보고, 산업화는 사회적 및 정치적 변동의 핵심으로서 서구에서 오기 때문에 근대화란 결국 서구화라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달리 Moore(1963)는 근대화란 전통적 힘에 대한 통제력의 급진적 증가와 더불어 세계체제에 합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각 사회에서 어떤 부문은 이미 근대성을 갖추고 있고, 어떤 부문은 근대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① 경제발전론

근대화를 경제발전의 의미로 보는 것이 근대화이론 가운데 가장 고전적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발전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한 경제의 실질적 수입이 증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 국가에서 경제성장율이 인구성장율보다 높으면 1인당 실제수입은 증가하고, 그 결과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국가경제의 실질적 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위와 같이 수입의 증가라는 단일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수입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공급과 수요구조의 변동, 추가적 자원의 개발, 자본축적, 인구성장, 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기타 사회제도와 조직의 수정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Chodak, 1973 : 212). 이렇게 볼 때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근대화는 곧 산업화를 뜻한다.

위와 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서의 경제발전에 관한 대표적 이론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Rostow의 경제발전 5단계 이론(전통사회→도약준비의 단계→도약단계→성숙준비의 단계→고도 소비시대)이다. 그는 이 5단계 가운데 도약단계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분기점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경제발전 측면에서의 근대화이론은 순전히 경제학적 이론으로서,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근대화의 수준을 단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단계이론(development stage theory)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근대적 경제발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 학자로서는 Hagen과 McClelland를 들 수 있다. Hagen(1962)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자본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전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거부하고, 경제발전의 궁극적 원인은 퍼스넬리티라고 보았다. 즉 자본형성과 그것의 결과보다는 그러한 자본을 만드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퍼스넬리티의 유형을 전통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그리고 근대사회에서는 개혁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개혁적 퍼스넬리티는 창조성, 경험에 의한 개방성 및 끊임없는 호기심을 그 특징으로 한다. 권위주의적 퍼스넬리티가 무너지고 개혁적 퍼스넬리티로 변하면서 근대사회를 형

성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은 지위존경의 철회(status withdrawal)이다. 지위존경의 철회란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해 어떤 사람이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지위존경의 철회가 일어나면 다음 세대의 교육과정은 자립심과 성취욕구를 강조하고, 그 결과 개혁적 퍼스널리티가 형성된다.

이와는 달리 McClelland(1961)는 경제발전의 주력을 기업가의 성취동기라고 보았다. 기업가는 이윤추구보다는 성취동기를 그 본질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높으면 활동력 있는 기업가가 창출되고, 이런 기업가가 많을수록 높은 경제발전이 일어난다. 이것은 곧 성취 지향적 사회화가 근대화, 특히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이라는 관점이다.

이외에 Spengler(1961)는 한 사회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세계관을, 그리고 Lerner(1964)는 근대적 교육, 대중매체에의 노출을 통한 인간의 감정이입(human empathy)을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 ② 정치발전론

정치발전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정치적 평등(equality), 능력(capacity) 및 분화(differentiation)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종합될 수 있다(Chodak, 1973 : 229). 이러한 정치발전의 과정은 6가지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6가지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때 정치적 근대화가 이루어진다. 그 6가지 위기는 다음과 같다(Chodak, 1973 : 230): 국가에 대해 동일의식을 갖느냐라는 정체감의 위기(identity crisis), 의사결정의 권력 및 권위의 인정과 연관되어 있는 정당성의 위기(legitimacy crisis), 하향적 의사소통 통로의 구성을 뜻하는 침투의 위기(penetration crisis), 정치적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출현 및 대중참여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참여의 위기(participation crisis), 제기된 문제와 그 해결 간의 통합의 위기(integration crisis), 권력이나 위세 등의 분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 분배의 위기(distribution crisis). 이렇게 보면 정치발전 측면에서의 근대화란 결국 한 마디로 말하면 민주화 과정이고, 각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치발전의 단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제 3세계의 정치발전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다원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주의적 관점이다(Webster, 1984 : 125-134). 전자는 민주국가 건설의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제도의 근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계급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분배와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관점에 의하면 정치발전이란 권력이 여러 집단으로 분산되어 있고, 동시에 경쟁집단이 압력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후자의 관점에 의하면 정치발전이란 어느 특정 지배계급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일반대중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정책결정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 3세계의 정치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변동해 오지는 않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민주화보다는 안정과 보전을 위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이고, 민주주의 원래의 理想을 사회적 및 정치적 질서의 의미로 대치시키고 있다(O'Brien, 1975). 정치적 특성은 강력한 정부, 정치 지도자들의 외교집적인 마음, 정치적 불안정, 군사적 독재, 反共主義의 성격을 띠고 있고, 특정 계급과 결부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정치발전을 추구해 오고 있다(Webster, 1984 : 135-145). 제 3세계의 정치발전이 이러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O'Brien, 1975). 하나는 2차 대전 후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대립 때문에 계속되어 온 내부의 불안정한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대행(counter-revolution)을 강조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이고, 또 하나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내의 불안정한 정치이다.

### ③ 구조분화론

근대화를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경제학적 이론이고, 정치발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정치학적 이론이라면, 사회구조와 기능이 분화되고 통합되는 과정의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구조분화론은 사회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의 분화란 하나의 전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 예컨대 정치제도, 경제제도, 종교제도, 교육제도 또는 개인들의 행위양식이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독립성에 기초하여 자율성이 증가되고, 그 결과 기능적 효율성이 증가되는 것을 뜻한다. 사회구조의 통합이란 각 부분들은 자율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부분과 기능적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효율성의 증가를 위한 메카니즘도 발달됨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구조분화론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문제도 모두 포괄하는 더욱 넓은 이론이라 하겠다.

구조분화론의 학자로서는 Hoselitz와 Smelser를 들 수 있다. Hoselitz(1960)는 근대화란 전통적 유형변수를 제거 또는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유형변수(〈표 1〉에서 왼쪽에 있는 유형들)의 제거 혹은 수정의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얼마나 근대화 되었는가의 측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양식과 사회제도에 있어서 근대적 유형변수(〈표 1〉에서 오른쪽에 있는 유형들)의 조합들이 얼마나 지배적인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 근대적 유형변수의 조합과정이 곧 사회구조와 기능의 분화와 통합과정으로 보았다.

Smelser(1973)도 근대화를 사회구조와 기능의 분화와 통합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Hoselitz와는 관점이 다르다. 즉 Smelser는 구조분화란 하나의 사회적 역할 또는 조직이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들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이나 조직으로 쪼개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 구조분화는 전체 제도적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구조분화는 근대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회발전은 구조분화 뿐만 아니라 분화된 구조들 간의 통합이라는 對位法的 상호작용(

contrapuntal interplay)에 기초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구조가 분화되면 하나의 전체는 여러 개의 의미있는 개체들로 나누어지고 또한 여러 개체들의 이해관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묶어주는 메카니즘도 동시에 발달하여야 사회발전이 일어난다. 이때문에 전통의 힘, 분화의 힘 및 통합의 힘 간에 불연속이 존재하여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집단갈등이 형성되면 근대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2) 후발효과이론

근대화를 후발효과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후발효과이론인데 그 대표적 학자로서는 Bendix(1977), Gerschenkron(1962), Levy, Jr.(1972)이다. 이들의 이론적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양종회, 1986).

후발국의 근대화 과정은 선진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후발국의 근대화는 선진국의 후발효과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대화의 조건이 다르다. 둘째, 선진국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의 전파를 통한 전시효과 하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진다. 셋째, 지식과 기술의 전파는 후발국에게 선례와 경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열망과 理想에도 영향을 준다. 이 열망과 이상은 후발국의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산업화 혹은 경제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되는 후발국의 근대화는 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구조의 내적 변동이다. 이 내적 변동은 항상 발달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후발국의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는 확산효과 및 정부간섭이라는 두 요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후발국의 근대화는 그것이 일어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선진국과 동일한 획일적 과정을 겪지 않는다.

선진국과 후발국의 근대화 과정의 차이는 후진효과(backwardness effect)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들어난다. 후진효과란 낙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효과이다. 후진효과는 근대화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장점으로서는 선진국의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선진국이 범한 오류를 피할 수 있고, 광범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선택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서는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선진국의 고급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하기 어려운 점, 선진국과 후발국의 심한 격차가 후발국으로 하여금 근대화에 더 큰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3) 세계미래이론

앞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근대화이론은 변동의 내재성과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전

제로 하고 있고, 후발효과이론은 후발국의 발전을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근대화이론과 후발효과이론은 1970년대에 와서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도전은 각 사회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의심은 2차 대전 이후 일어났던 경제적 붐이 종식되고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973년 OPEC의 결정으로 석유값이 급등하여 서구 산업국가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 국가의 경제는 세계시장의 영향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고, 또한 석유를 포함하여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세계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가져왔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을 세계적이고, 체제론적이며, 미래주의적인 방향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세계미래이론이다.

세계미래이론은 제 1세계나 제 2세계 또는 제 3세계로 분리하지 않고 세계체제 혹은 세계 공동체의 성장 자체에 대한 검토로서, 지역 간의 기능적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론은 사회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세계에 대한 전망이다. 이 전망은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나누어진다. 비관론자로서는 Meadowest 등을 들 수 있고, 낙관론자로서는 Kahn 등을 들 수 있다.

Meadowest 등(1972)에 의하면 인구, 에너지, 식량, 오염 등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 선진국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진국은 산업화를 중지하고, 선진국은 성장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후진국과 선진국의 빈부의 격차는 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적 재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Kahn 등(1979)은 비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는 자본의 투자와 기술혁신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오히려 후진국 발전의 動力으로 보고 있다.

#### (4) 종속이론

제 3세계의 발전(development) 또는 저발전(underdevelopment)에 관한 종속이론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제국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축적은 고정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총자본에 대한 이윤율의 감소를 가져 오고, 이것은 과잉생산과 과잉소비의 위기를 초래시키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품보다는 자본을 후진국에 수출하여야 한다. 이 자본의 수출이 제국주의이다. 자본의 수출 결과 선진국은 후진국의 경제를 지배 및 예속화하고, 이것은 정치적 지배 및 부종도 가져 온다. 이렇게 볼 때 제국주의 이론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후진국을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제국주의의 효과 또는 결과에 기초하여 후진국의 입장에서 후진국을 보는 관점이다.

종속이론은 1960년대에 와서 남미의 발전문제를 다루면서 제시되었다. 이 이론은 근대화

이론으로는 남미의 발전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였는데, 유엔 산하의 ECLA(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에서 시작하여 Baran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Baran(1967)에 의하면 저개발국은 선진국에 1차 상품을 착취당하면서 선진국의 발전에 기여한다. 즉 후진국은 선진국에 주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이윤과 투자의 出口를 제공하는 필요 불가결한 배후지가 됨으로써, 그 결과 후진국은 경제적 잉여가 유출되고 인간활동과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계속 저발전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남미는 사회발전을 위해 근대화이론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그 외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제 1세계와의 상대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발전'이라는 현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저발전의 원인이 '종속(dependency)'이라고 보면서 남미의 사회발전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이 종속이론이다. 종속이론에서 '종속'이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저개발국이 착취당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하는 '조건화된 상황'을 말한다(Dos Santos, 1970), 이 종속은 먼저 재정이나 무역(Emmanuel, 1982) 및 자본의 독점(Magdoff, 1982)과 같은 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난 후, 사회적 및 정치적 영역(Almond and Coleman, 1960) 뿐만 아니라 기술적 영역(Sunkel, 1971)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기본적 틀에 기초하고 있는 종속이론은 제 3세계의 발전 또는 저발전에 대한 관점에 따라 저발전심화이론, 종속적 발전론 및 신종속이론으로 나누어진다.

#### ① 저발전심화이론

저발전심화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후진국은 선진국과 관계를 맺을수록 저발전만 더욱 심화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Frank와 Furtado 등 초기 종속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되었기 때문에 초기 종속이론이라고도 한다.

Frank(1960)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관계는 제국주의적인 중심부-위성(metropolis-satellite)의 관계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이 관계는 생산보다는 교환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남미는 식민지 초기에 이미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저발전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잉여의 유출이라는 수탈의 모순, 중심부-위성의 관계라는 양극화의 모순, 저발전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구조의 모순이 그 원인이다. 이 틀에 따라 Frank(1967)는 남미의 수입대체 산업화가 실패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미의 재정, 시장, 자본재, 기술이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점점 더 의존화하여 산업화 과정 자체가 종속을 심화시키고, 저발전을 촉진시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사치품과 내구재 생산이 산업화를 주도함으로써 수입된 생산재, 부품 및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화였고, 다른 하나는 심각한 수지 불균형이 외국회사의 생산재와 기술의 투자를 더욱 유인시켰다. 이 결과 외부에의 종속이 극단적인 내적 소득 불평등 구조를 형성시켰고, 이것은 다시 산업화 과정을 왜곡시켜 저발전을 심화시켰다.

Furtado(1970)는 유럽의 경제가 남미로 침투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종속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심부(유럽)에서 기술이 발달되어 그 기술이 주변부(남미)에 식민지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첫번째 과정이다. 다음 과정으로는 주변부의 원료를 착취함으로써 중심부의 경제가 주변부의 경제로 확장되어 그 결과 주변부는 어떤 부문은 발전되고 어떤 부문은 발전되지 않는 이중 경제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3가지 유형의 종속이 일어난다. 하나는 자본과 기술 등의 식민지적 종속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부에 원료와 노동력을 수출하는 수출 지향적 종속이고, 또 하나는 중심부가 기술과 자본을 주변부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의 종속이다.

### ② 종속적 발전론

종속적 발전론은 Evans, Cardoso, Faletto 등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저발전심화이론 다음에 나타났다. Evans(1979)에 의하면 후진국의 종속은 초기의 고전적 종속과는 다르다. 즉 후진국은 자본의 축적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산업화, 내부의 생산성 및 분업화를 발달시켰다. 이러한 발달이 곧 종속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이다. 후진국은 이 종속적 발전으로 과거의 종속 형태에서는 벗어 났지만 종속의 모순은 여전히 잔재해 있는데 그것은 토착자본, 국제자본 및 국가자본의 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종속적 발전론은 저발전심화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결합이 저발전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관점이다.

Cardos와 Faletto(1979)는 역사적-구조적 분석(historical-structural analysis)에 기초하여 후진국의 사회적 갈등 및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후진국의 종속적 발전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종속적 발전의 형태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그 차이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크기와 유형, 중간계급의 크기와 유형, 관료계의 비중, 군대의 역할, 국가의 형태 및 이데올로기를 통해 결정된다.

### ③ 신종속이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화이론은 내적 요인을, 저발전심화이론은 외적 요인을, 그리고 종속적 발전론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저발전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신종속이론은 저발전 자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대표적 학자로서는 Dos Santos와 Portes를 들 수 있다.

Dos Santos(1973)는 세계 자본주의가 잉여수탈을 통해 저발전의 조건을 창조했고 오늘날 까지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저발전심화이론의 명제를 거부하고, 저발전의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 잉여의 많은 부분이 유출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고려해야 할 점은 국제적 종속관계에 의해 조건지워진 후진국의 내부구조라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 의하면 국제적 종속관계의 형성이 원래의 종속이라만, 이 원래의 종속에 의해 조건지워진 후진국의 내부구조가 다시 새로운 종속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신종속(new dependency)이다. 그는 신종속을 일으키는 주요한 내부구조로서 후진국 안에서 다국적 기업의 발달, 그로 인한 토착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 다국적 기업과 토착기업 종사자 간의 임금격차, 원료의 수출 및 제품의 재수입, 생활수준이 발달되지 않는 점, 국내시장의 성장에 기초하지 않은 발전 등을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내부구조로 인해 신종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진국은 발전보다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설사 발전을 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자율적 발전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Portes(1973; 1976)는 지금까지의 발전이론들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하나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외적 연관을 강조하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후진국 안에서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들의 조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는 '종속으로부터의 혁명'을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발전은 경제적 측면, 사회관계 형성의 조건, 역사적 및 정치적 과정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5) 세계체계이론

종속이론이 남미를 배경으로 한 경제학적 관점이라면, 세계체계이론은 북미를 배경으로 한 사회학적 이론이다. 세계체계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Wallerstein(1974; 1979; 1980; 1984)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변천과정을 세계체계(world system)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세계체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세계제국(world-empire)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world-economy)다. 세계제국이란 공통의 정치체제로서, 그 안에 여러 사회와 문화가 통합되어 있는 체계를 일컫는다. 세계경제란 단일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단일 분업에 의해 통합되어 있는 체계를 일컫는다. 현대세계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에 의해 통합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이지만 해외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생산하고 무역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속에서 각 나라는 그들의 위치에 따라 주변부(periphery), 반주변부(semi-periphery), 중심부(core)로 나누어진다. 주변부란 주로 1차 상품을 생산하여 중심부에 수출하는 저발전국이다. 낙후된 기술, 저임금에 의한 노동착취, 중심부로 자본의 유출 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주변부는 경제력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중간적 위치에 있으면서 주변부에 대해서는 착취의 역할을 하고, 중심부에 대해서는 피착취의 역할을 한다. 반주변부는 자본주의적 세계체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나는 정치적

기능으로서, 주변부의 분노와 혁명적 행동을 둔화시킨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기능으로서, 중심부에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에 너무 빨리 상승할 때 자본투자의 좋은 장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세계체계 속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간에 불평등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불평등 교환의 과정에서 중심부는 주변부에 대해 정치적 간섭을 하고, 또한 전체 세계경제를 수탈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체계는 고정불변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하고 있다. 즉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代價로 하여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또는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상향이동을 한다. 상향이동의 방법은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초대에 의한 상향이동이다. 이것은 자연자원이 많거나 정치적 요인이 호의적이어서 다국적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산업화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자립적 전략에 의한 상향이동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의 참여를 최소화 시키고 자급자족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기회포착의 전략에 의한 상향이동이다. 이것은 경제적 위기 또는 불황 등으로 세계시장이 축소되는 순간 주변부가 기회를 잘 포착하여 수입대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 (6) 생산양식이론

종속이론은 제 3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을 제 1세계의 착취에서 찾고 있고, 세계체계이론은 교환관계 또는 유통구조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aclau, Meillassoux 등은 제 3세계의 저 발전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前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합의 결과로 이해하려는 독특한 이론을 구성하였는데, 이것이 생산양식이론이다. 이 이론은 제 3세계의 저 발전을 前근대적 단계로 설명하는 근대화이론을 비판하는데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더욱 실제적으로는 종속이론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즉 제 3세계 가운데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저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종속이론의 틀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양식의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각 학자들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clau(1979)는 제 3세계의 저발전의 근본적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前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합에서 찾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심부의 자본주의가 주변부를 세계시장에 노출시킬 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대신 주변부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기존의 전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연합된다. 즉 잉여수탈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결합된다. 자본주의적 세계체계에서 서로 다른 생산양식들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운동법칙'인데, 이것은 곧 이윤율의 상하작용이다.

이윤율의 상하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확장은 자본축적에

달려 있고, 자본축적은 이윤율에 달려 있고, 이윤율은 잉여가치율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 상승에 따른 이윤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잉여가치율을 높여야 한다. 잉여가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와 노동을 극대로 착취할 수 있는 주변부의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접하게 되고, 그 결과 주변부에서는 노동착취를 당하게 된다.

Laclau의 이러한 관점은 생산양식을 생산관계, 즉 계급구조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그러나 Meillassoux(1974)는 생산양식을 생산력에 초점을 두고 아프리카의 저발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이론적 핵심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에는 자급자족적인 국내 농업을 유지함으로써 노동가치를 자본주의 부문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항상 존재하여 왔다. 즉 식민지주의 하에서 유럽은 아프리카의 국내 자급 생산조직을 유지시키려 하였다. 그 이유는 그럴 경우 상품생산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재생산할 만큼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주는 임금은 그 마을의 가족수입에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금노동 그 자체를 재생산하는데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이 결과로 노동자의 푸로레테리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 생산양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결합하여 공존했으며, 현재의 제 3세계에도 이러한 결합이 존재하고 있다.

## 4. 사회발전 이론들의 설명력의 한계

### (1) 근대화이론

자유주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근대화이론은 경제발전론, 정치발전론 및 구조분화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약하면 근대화이론에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및 정치학적 관점이 혼합되어 있다. 근대화이론은 산업화된 서구사회의 학자들에 의해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발전국 중심의 견해일 수 밖에 없는데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근대화의 개념이 前근대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경험적 특성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으므로 근대화된 사회의 모습을 서구사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근대화된 사회의 모습은 세계 어디서나 실현되어야 할 동질적인 최종 산물로 된다. 발전이란 후진적인 전통적 지역에 근대성을 전파 또는 확산시킴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근대화의 과정 동안 모든 사회가 일련의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는 점에서 單線的의 사회변동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대화된 사회와 대비되는 것이 제 3세계의 전근대사회, 즉 전통사회로 본다. 근대성과 전통성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특성이므로 근대화의 과정은 전통사회의 모든 요소를 폐기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제 3세계의 전통문화, 전통사회적 요소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태도와 思考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근대화이론은 서구사회의 自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 3세계의 사회구조를 二重社會로 본다. 이중사회란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넷째, 사회변동의 분석단위를 일국가인 민족국가로 잡는다. 즉 세계 속의 각 국가 혹은 사회는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변동의 요인도 내부적인 요인에만 국한시킨다. 따라서 제 3세계가 덜 발달되거나 근대화되지 못한 원인도 제 3세계 사회 자체의 내부적 요인으로 설명하게 되므로 제 3세계의 저발전 자체의 원인은 제 3세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다시 저발전국인 제 3세계는 본질적으로 독자적 발전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관점으로까지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대화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양종희, 1986).

첫째, 직선적인 단일 발전단계 모델로서 모든 사회는 동일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따라서 각 사회는 발전의 연속선 상에서의 위치에 따라 서열이 지워지고 비교된다.

둘째,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개념을 가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체계로서의 사회는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부분도 변하기 마련이며, 사회가 근대화된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근대적 사회, 즉 서구의 산업사회와 같은 유형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원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내생적인 발전의 가정이다. 즉 발전은 사회 내부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이 전개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후진성이나 전근대성은 그 사회의 내적인 결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화는 그런 장애를 제거하거나 전통적인 요소를 근대적으로 변천시키므로써 가능하다. 결국 근대화이론은 각 사회가 독립적으로 전통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근대적 속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근대성은 현재 서구 산업국가에서 발견되는 합리적인 사회적·경제적 조직, 정치·가족 등의 주요 제도, 계층·산업구조·가치체계 등으로서, 후진국은 근대화함에 따라 서구 산업국가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근대화이론은 1960년대까지는 서구나 제 3세계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군림하였으나 곧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비판은 곧 근대화이론의 설명력의 한계로서 주로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이루어졌으나 자유주의 전통 내부의 급진적 반성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그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계의 모든 사회를 전통사회-근대사회로 양분화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다(

Webster, 1984 : 57). 이 양분법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여 온,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들의 다양성을 너무나 단순화시킨 것이다. 특히 근대화이론에서는 '전통'을 전산업 사회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산업사회들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을 만큼 사회구조, 경제구조 및 정치구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둘째, 근대사회나 근대화하는 사회에서도 전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전통적인 요소가 반드시 근대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전통사회도 그 구조에 있어서 다양하므로 전통을 근대에 반대되는 단일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특히 Bendix(1977)는 근대화를 어떤 보편적인 체계적 특징 혹은 구조적 특징, 특히 서구 산업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근대화란 기본적으로 특정한 역사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서구적 근대화 과정이나 서구적 근대사회가 되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넷째, 하나의 체제로서의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으로써 근대화는 모든 제도적 영역에서 일어나서 서구형의 사회체제로 수렴된다는 가정이 비판된다. 즉 부분적 발전이나 근대화의 가능성이 주장되고, 그런 부분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 형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Nettl and Robertson, 1968; Garnsey, 1975).

다섯째, 진화론적 모델이 가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발전단계 및 발전의 논리성·자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각 사회는 모두 같은 단계를 거쳐 발전하지 않으며, 사회변동은 내생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Nisbet, 1969).

여섯째, 근대화이론은 전근대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 관한 이론이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다(Webster, 1984 : 57). 비록 사회구조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근대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분화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일곱째, 근대화이론은 비록 제 3세계의 사회발전을 다루고 있지만 제 3세계에 대한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여덟째,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대화이론은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부적합하며, 정치적 의미로도 적합하지 않다(Frank, 1972).

## (2) 후발효과이론과 세계미래이론

후발효과이론은 근대화이론과는 달리 진화론적 가정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가 간의 확산을 통한 전신포를 강조함으로써 외부의 영향에 의한 발전과정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발전 혹은 근대화는 그 사회가 理想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목표를 향한 의도

적인 정부의 노력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사회마다 특수한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또한 근대화하는 시기가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이미 근대화한 사회의 존재가 전시효과를 통해서 근대화의 理想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후발효과이론은 외생적 발전, 전시효과, 근대화의 理想, 정부의 역할,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 등을 강조하므로써 초기 근대화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후발국의 후진성을 후발국 자신 혹은 우연에 돌림으로써 후발국과 선진국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영국을 시발로 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하나의 理想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전통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미래이론의 관심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종속이론이나 세계체계이론과 공통되는 점이 많다. 즉 한 국가의 발전은 그 국가를 세계경제에 위치시켜서 분석해야 한다는 점, 세계를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는 점, 그리고 제 3세계의 발전 혹은 저발전 문제는 선진국의 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발전 또는 저발전의 원인 및 메카니즘, 저발전의 해소책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적 발전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미래이론은 그것이 비관론이던 낙관론이던 인간이 의지대로 사회변동 또는 사회발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변동시킬 수 있고, 더구나 그럴 경우 역사의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Hoogvelt, 1986: 147). 그러나 이 가정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에 의한 통제의 결과나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미래이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사회발전 과정의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 (3) 종속이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속이론은 제 3세계의 발전 또는 저발전의 문제를 제국주의의 효과 또는 결과에 기초하여 후진국의 입장에서 후진국을 보는 관점인데, 그 관점에 따라 저발전심화이론, 종속적 발전론 및 신종속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속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정은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Frank, 1972).

첫째, 누구의 위성도 아닌 중심부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적 혹은 다른 수준의 주변부는 그들의 주변부적 지위 때문에 발전에 제한을 받는다.

둘째, 위성지역이 그 중심부와와의 관계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활발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혹은 산업화를 이룩한다.

셋째, 오늘날 가장 후진적이고 봉건적인 것처럼 보이는 지역은 과거에 중심부와 가장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지역이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종속이론은 후기 자본주의적 발전의 모순과 구조적 역동성의 측면에서 제 3세계의 발전 또는 저발전에 대해 주요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발전보다는 저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저발전국의 저발전은 발전국의 발전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O'brien, 1975). 이러한 종속이론은 가장 직접적으로 근대화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두 이론의 틀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의 비교

비 교 항 목	근 대 화 이 론	종 속 이 론
이데올로기적 성향	친자본주의적 관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분석의 초점	근대성의 전파	선진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로부터 초래되는 저발전
분석의 단위	국가對 국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국제적 관계
국가 간의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이해관계의 대립

그러나 종속이론은 종속의 개념과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종속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종속이론에서 종속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사회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종속의 개념을 하나의 전체로서의 경제의 조건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객관적인 경제적 사실에만 적용하고 있다(Lall, 1975). 이 때문에 종속이론은 저발전국은 그들이 종속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발전한다라는 논리에 빠지게 된다.

둘째, 종속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킬 때 비로서 유용한 분석적 개념이 될 수 있다(Lall, 1975). 하나는 비종속국의 경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종속적 경제의 어떤 특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그 특성은 종속국의 발전과정과 발전유형에 영향을 줌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이 두 가지 점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종속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을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속이론은 경제적 종속이 끊어질 때 모든 유형의 종속이 끝날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넷째, 종속은 비단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중심부 국가들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보기를 들면(Lall, 1975) 외국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캐나다와 벨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보다 중심부에 더욱 종속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벨기에는 종속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은 경험적 타당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종속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보기를 들면 Bornschier *et al.*, 1978; Meyer and Hannan, 1979) 일관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경험적 연구들은 왜 어떤 국가들 간에는 종속적 관계가 형성되고 또 어떤 국가들 간에는 종속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가에 대해 타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종속이론의 이러한 경험적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종속이론가들(보기를 들면 Palma, 1979)에 의하면 종속이론은 저발전국의 실제의 실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된 이론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종속이론이 가지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각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현실을 세계체제(world-system)라는 하나의 틀 속에 집어 넣어, 이것을 다시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경제적인 것이 초구조적 현상이라는 모순에 빠져 있다(Baran, 1967).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과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world capitalist economic system)를 혼동하고 있다. 이 혼동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나의 순환적 체제(circulating system)로 이해함으로써 주변부 국가들의 다양한 생산양식을 전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어났다(Laclau, 1971). 사실 제 3세계에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생산양식을 가진 봉건주의 또는 전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제 3세계들도 역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 합병되어 있다.

셋째,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단순히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교환관계로 설명함으로써(보기를 들면 Frank, 1967; Wallerstein, 1982) 주변부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내적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 이 내적 구조로서는 정치적 및 군사적 제휴나 갈등(Skocpol, 1977; Modelski, 1978), 내부의 계급갈등과 그 결과(Skocpol and Trimberger, 1978), 전통적 생산양식과 그 결과 형성되는 계급구조(Laclau, 1971), 내부의 사회적 상황을 통제하는 중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Petras, 1977)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저발전을 목적지향적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Frank(1967)와 Cardoso(1982)에 의하면 제 3세계는 종속의 쇠사슬을 끊으므로써 착취가 중단되고 발전이 가능하다. 저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경제적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에서 사회주의로 전환 또는 혁명적 투쟁으로 전환하는 일이다(Leys, 1971). 이 때문에 종속이론은 과학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에서는 理想的인 발전이 일어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진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Phillips, 1977; Hoogvelt, 1986 : 167)

#### (4) 세계체제이론

세계체제란 상호 연관된 사회들의 구성체이다. 각 사회의 존재형태는 그 사회가 세계체

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 즉 강한가, 약한가 혹은 중간적인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세계체계이론의 핵심이다. 이 이론은 남미의 종속이론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종속이론적 시각이 남미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데 공헌하였고, 또한 북미 및 유럽에서 이 시각에 기초한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세계체계론적 시각은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양종희, 1986).

첫째, Brenner(1976)는 Wallerstein의 해석과는 달리 동부 유럽의 경제적 후진성은 종속의 결과가 아니고 후진성이 종속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因果問題 외에도 중심부 국가는 반드시 강하고 주변부 국가는 약하다는 명제도 반박되고 있다. 즉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발전의 성공한 것은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renner, 1977).

둘째, Wallerstein은 국제 정치체계 내에서 민족국가들 간에 맺는 정치적 혹은 군사적 제휴 또는 그들 간의 갈등, 전쟁 등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저해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자본주의체계는 국가 간의 세력의 집중·분산 등의 반복적인 변화를 통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Skocpol, 1977; Modelski, 1978).

셋째, 세계체계이론은 세계를 몇 부분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침투에 대해 각 사회가 왜 상이하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이한 사회를 구분할 수 없는 단점은 비역사적인 유럽 중심주의라는 비난을 초래하며, 지나치게 경제 일변도적 해석으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관련된다. 예컨대 왜 경제발전이 세계체계 내의 권력이나 위치와는 관계없이 비슷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진 지역에서 비슷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Chirot and Hall, 1982). 이 비판은 세계체계이론 뿐만 아니라 종속이론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넷째, 위와는 달리 이론적 차원에서 Wallerstein의 세계체계이론에 대한 중요한 비판이 Laclau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Laclau(1979)의 비판은 Frank의 유통주의적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의 연장으로서, Wallerstein에 있어서는 경제체계와 생산양식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즉 Wallerstein도 Frank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상품교환이라는 교환이론적 자본주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자본주의적 세계체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계체계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접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5) 생산양식이론

생산양식이론은 통시적 제국주의 이론의 발달을 가능케 한다(양종희, 1986; Hoogvelt, 1986: 181-184). 즉 착취의 조건이 오랜 시간을 통해 역사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착취가 왜, 어떻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뿐만 아니라 생산양식의 개념은 상이한 지역, 상이한 역사적 시점에서 상이한 발달경험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예컨대 식민주의 하에서 자본주의는 때로는 이민정책으로 토착사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수탈을 위해 토착조직, 토착제도, 토착권위를 보존하기도 한다. 또 원자재 수출이나 대규모 상품생산이 목적일 때는 봉건적 형태를 강화하거나 도입하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제 3세계의 상이한 지역에서 상이한 활동이나 전략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양식이론은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제국주의적 침투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전략이나 발전의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양식이론도 설명력에 문제점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Banaji(1972)와 Alavi(1975)는 생산양식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생산양식의 접합'을 비판하면서 제 3세계의 경제를 단일한 생산양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상이한 생산양식 간에는 모순, 대립의 관계가 지배적이므로 생산양식 간의 접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3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산양식은 두 생산양식의 접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민지적 생산양식(colonial mode of production)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생산양식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Banaji와 Alavi의 이 관점은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접합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는 하나의 독특한 생산양식임을 뜻한다. 여기서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뜻한다.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서 아시아란 현재의 아시아에 한정되지 않고 마르크스·엥겔스가 파악한 비유럽, 즉 19세기 후반에 자본주의가 형성된 서유럽 및 미국 이외의 구미자본주의의 지역도 포함된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사회체제는 농업과 수공업이 家內的 내지 공동체적인 강인한 결합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기에 기초를 둔 국가적 토지소유 등을 특징으로 하며, 수 천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된 왕국의 정제된 사회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의 정체성이란 '생산력의 저발전과 공동체적 요소의 강인한 존속'을 말한다.

이와 같이 비서구 사회를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면,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내재적 계기를 갖지 못하므로 타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체제로 이행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 타율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공존은 두 생산양식의 접합이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생산양식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형태의 생산양식은 저발전국으로 하여금 발전에 한계를 가지게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요약 및 토론

19세기 초기 사회학이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대두 되면서 주된 관심은 사회구조와 사회변동의 분석이었다. 초기 사회학자들은 모든 사회변동은 보다 나은 상태로의 진화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진화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이들의 사회발전론을 고전 진화이론이라고 한다. 20세기에 들어 와서는 신진화이론이 나타났다. 이 이론은 고전 진화이론의 기본틀에 기초하여 사회구조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사회발전으로 보았다. 고전 진화이론과 신진화이론은 선진사회, 개발도상의 사회, 후진사회에 관계없이 사회발전에 관한 일반적 이론이었다.

그러나 사회발전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신생국들의 등장과 더불어서이다. 이들 신생국, 즉 제 3세계는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후진성을 벗어나서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 3세계의 사회발전에 관한 본격적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조류를 형성하였다. 하나는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결합한 자유주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결합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다. 전자는 다시 근대화이론, 후발효과이론 및 세계미라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근대화이론은 다시 경제발전론, 정치발전론 및 구조분화론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종속이론, 세계체계이론 및 생산양식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종속이론은 다시 저발전심화이론, 종속적 발전론 및 신종속이론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모든 이론은 결국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대화이론과 후발효과이론은 국가 간의 접촉을 통해 자생적 요인 또는 외생적 요인으로 평등화되어 가는 과정에 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종속이론, 세계체계이론 및 생산양식이론은 국가 간에 불평등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한 관점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미래에도 국가 간의 평등화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이론들의 출현과정은 Kuhn의 과학혁명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즉 특정 시대에 지배적 위치에 있던 이론은 새로운 이론에 의해 도전을 받아 쇠퇴하고, 새로운 이론이 다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이 새로운 이론은 또 다시 다른 새로운 이론에 의해 도전을 받아 쇠퇴한다. 고전 진화이론에서 가장 최근의 생산양식이론에 이르기까지 사회발전 이론들의 출현과정은 이러한 변동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이론 모두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정립되었기 때문에 고유의 특성이 있지만 또한 설명력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 한계는 무엇을 사회발전으로 볼 것

인가, 사회발전의 주 요인이 무엇인가, 사회발전을 설명하는 내적 논리의 메카니즘,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이론을 막론하고 사회발전이 무엇이나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념이란 어떤 현상의 본질에 대한 表象(representation)이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틀이요, 동시에 분석의 틀이다. 이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현상에 대한 이론이 다르게 정립될 수 있다. 이 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회발전 이론이 다양하게 대두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회발전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발전의 개념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사회발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석의 틀이 달라져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발전이 무엇이나라는 개념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발전의 논의에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발전과 저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사회발전 이론들은 막연히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에 기초한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차원에서 후진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상황을 저발전의 것으로 보고 있었다. 주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후진국들 간에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상황의 수준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안에서도 다양하다. 이렇게 보면 발전 또는 저발전의 수준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 또는 저발전의 측정은 1인당 국민소득 뿐만 아니라 연평균 성장율, 산업화의 정도, 수출·입의 양, 노동력의 크기 및 분포, 소득수준의 분포유형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발전의 논의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세계 정치체제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사회발전 이론들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하나의 단일체제 안에서 국제적 층화 내지는 분업의 관점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순전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관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나라들 간의 정치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 관계가 국제적 차원으로 메카니즘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세계 정치체제의 관계도 사회발전 이론에 포함되어야 더욱 포괄적인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도움을 받은 글들

고영복

1975, "근대화와 사회이론", 『政經研究』, 10월호.

김경동

1979, 『발전의 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

1980, "농촌사회의 변화와 쟁점", 한국사회학회(편), 『70년대 한국사회』, 서울: 평민사, 161-201쪽

1984a, "한국의 공업화와 사회변동",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 여름호.

1984b, "사회의 발전", 진덕규 외, 『한국사회의 발전논리』, 서울: 흥사단 출판부, 104-142쪽

1985a, *Rethinking Development: Theories and Experiences*,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b, "한국사회의 발전과 근대화에 있어서 정치적 선택의 원리", 이해영 교수 추념 논문집,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서울: 법문사, 3-20쪽.

김경동(편)

1986,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기형

1982, "한국 공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이후의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연구』, 8집, 195-224쪽.

김성국

1984,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경제", 변형운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1』, 서울: 한울, 51-76쪽.

김영모

1978, "사회발전 이론의 몇가지 문제점 - 복지와 갈등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12집, 25-33쪽.

김일철

1985, "사회발전과 사회갈등",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9-38쪽.

김진균

1983,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 서울: 한울

박영신

1983, "한국사회 발전론 서설",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259-272쪽.

박재묵(편역)

1984, 「제 3세계 사회발전 이론」, 서울 : 창작과 비평사.

신용하

1983a, "한국 근대의 사회발전", 신용하(편), 「한국 근대사와 사회발전」, 서울 : 문학과 지성.

1983b,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 현대사회연구소, 243-258쪽.

안충용

1986,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1945-1985," *Korea & World Affairs*, Vol. 10, No. 1, pp. 91-117.

양종희

1985, "경제성장에 대한 후발효과이론의 경험적 검증", 이해영 교수 추념 논문집,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서울 : 범문사, 204-225쪽.

1986, "제 3세계 발전론과 한국사회의 변동", 성균관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의 변동」,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25-360쪽.

염홍철

1983, 「종속의 극복」, 서울 : 풀빛.

오갑환

1974, "후진국의 발전방향과 갈등", 한국미래학회(편), 「발전과 갈등」.

왕인근

1986, *Rural Development Studies :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석준

1985, "종속의 상황적 영향 : 경제성장과 경제부문간 불평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사회학」, 20집(겨울호), 139-163쪽.

1989, "제 3세계 발전론의 현황과 전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세 사회학」, 9호, 94-120쪽.

이만갑

1980,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론」, 서울 : 믿음사, 182-203쪽.

1982, *Sociology and Social Change in Korea*, Seoul : Seoulnational University Press.

임현진

1983, "종속이론의 가능성과 한계", 이만갑 교수 화갑기념 논총,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 범문사, 363-380쪽.

- 1985a, "종속적 발전에 따른 국가의 변모", 변형윤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1」, 서울:한울, 261-285쪽.
- 1985b, *Dependent Development in Korea, 1963-1979*,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희섭
- 1973, "Continuity and Change of Development Values in Korea", 「한국사회학」, 8집, 81-89쪽.
- 1982, "사회발전과 사회적 평등",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편), 「한국사회 연구개발Ⅷ」,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57-108쪽.
- 1983, 「사회적 평등과 발전」, 서울:정음사.
- 1984,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현암사.
- 조순
- 1985, "Endogenous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Science," *Korea & World Affairs*, Vol. 9, No. 4, pp. 725-747.
- 진덕규
- 1984, "정치발전의 이념적 전개", 진덕규 외, 「한국사회의 발전논리」, 서울:홍사단 출판부, 22-61쪽
- 차인석
- 1975, "산업화와 정치발전", 「문학과 지성」, 389-403쪽.
- 최협
- 1982, "Development and Change in Rural Ko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5. No. 2, pp. 231-245.
- 한상진
- 1985, "갈등의 제도화와 사회발전",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서울:현대사회연구소, 399-436쪽.
- 황성모
- 1975, "근대화 이론의 탈신화화", 「政經研究」, 10월호.
- Alavi, H.
- 1975, "India & the Colonial Mode of Production, *Social Register*.
- Almond, G. A. and J. S. Coleman
- 1960,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naji, J.
- 1972, "For Theory of Colonial Mode of Productio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7, No. 52.

Baran, P. A.

1967,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Bendix, R.

1977, "Tradition and Modernity Reconsidered," in R. Bendix, *National-Building and Citizenship*,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61-434.

Bornschier, V. et al.

1978, "Cross-National Evidence of the Effects of Foreign Investment and Aid on Economic of Growth and Inequality : A Survey of Findings and a Re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4. No. 3, pp. 651-683.

Brenner, R.

1976,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Past and Present*, Vol. 70.

1977,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 A Critique of Neo-Smithian Marxism," in H. Alavi and T. Shanin (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Developing' Societies*, London : Macmillan Press Ltd., pp. 54-71.

Cardoso, F. H.

1982, "Dependend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 in H. Alavi and T. Shanin (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Developing' Societies*, London : Macmillan Press Ltd, pp. 112-127.

Chirot, D. and T. D. Hall

1982, "World-System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8, pp. 81-106.

Chodak, S.

1973, *Societal Developm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Dos Santos, T.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No. 2, pp. 231-236.

1973, "The Crisis of Development Theory and the Problem of Dependence in Latin America," in H. Bernstein (ed.), *Underdevelopment and Development : The Third World Today*,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pp. 57-80.

Eisenstadt, N. S.

1964, "Social Change, Differentiation, and 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9, pp. 375-386.

1973, *Tradition, Change and Modernit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Emmanue, A.

- 1982, "White-Settler Colonialism and the Myth of Investment Imperialism," in H. Alavi & T. Shanin (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Developing' Societies*, London : Macmillan Press Ltd, pp. 29-55.

Frank, A. G.

- 1967,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 Historical Studies of Chile and Brazil*,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 1972, "Sociology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in J. D. C. Cockcroft, A. G. Frank, and D. C. Johnson (eds.), *Dependency and Underdevelopment : Latin America's Political Economy*, Garden City : Doubleday, pp. 341-397.

Furtado, C.

- 1970,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rnsey, E.

- 1975, "Occupational Structure in Industrialized Societies : Some Notes on the Convergence Thesis in the Light of Soviet Experience," *Sociology*, Vol. 9.

Gerschenkron, A.

-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Hagen, E. E.

- 1962,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 How Economic Growth Begins*, Homewood : Dorsey Press.

Hoogvelt, A. M. M.

- 1986, *The Third World Global Development*, London : Macmillan Education Ltd.

Hoselitz, B. F.

- 1960, *Sociological Aspects of Economic Growth*, Glencoe, III : The Free Press.

Kahn, H. *et al.*

- 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 Westview Press.

Kuhn, T. S.

-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clau, É.

- 1971, "Feudalism and Capitalism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Vol. 67. No. 2, pp. 19-38.

- 1979,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 Verso.

Lall, S.

- 1975, "Is 'Dependence' a Useful Concept in Analyzing Underdevelopment?," *World*

- Development*, Vol. 3, No. 11 & 12, pp. 799-810.
- Lerner, D.  
 1964,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Levy, Jr., M. J.  
 1972, *Modernization : Latecomers and Survivors*, New York : Basic Books.
- Leys, C.  
 1977, "Underdevelopment and Dependence : Critical Not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7, No. 1, pp. 92-107.
- Magdoff, M.  
 1982, "Imperialism : A Historical Survey," in H. Alavi & T. Shanin (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Developing' Societies*, London : Macmillan Press Ltd.,  
 pp.11-28.
- McClelland, D. C.  
 1967, *The Achieving Society*, New Jersey : D. Van Nostrand.
- Meadowest, D. et al.  
 1972, *The Limits to Growth*, New York : Universe Books.
- Meillassoux, C.  
 1974, "Development or Exploitation : Is the Sahel Famine Good Business?,"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1, No. 1, pp. 27-33.
- Meyer, J. W. and M. T. Hannan (eds.)  
 1979, *National Development and World System : Educ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1950-197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delski, G.  
 1978,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0, No. 2, pp. 214-235.
- Moore, W. E.  
 1963,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 Nettl, J. P. and R. Robertson  
 1968, *International Systems and the Modernization of Societies*, New York : Basic Books.
- Nisbet, R. A.  
 1969, *Social Change and History : Aspects of the Western Theory of Developm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O'Brien, P. J.

- 1975, "A Critique of Latin American Theories of Dependency," in I. Oxaal *et al.* (eds.), *Beyond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Economy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and Afric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7-27.
- Palma, G.
- 1978, "Dependency: A Formal Theory of Underdevelopment or a Methodology for the Understanding of Concrete Situations of Under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6, No. 7 & 8, pp. 881-924.
- Parsons, T.
- 1964, *The Social System*, New York: The Free Press.
- Petras, J.
- 1977, "State Capitalism and the Third World," *Development and Change*, Vol. 8, No. 1, pp. 1-18.
- Phillips, A.
- 1977, "The Concept of Development,"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8, January - April, pp. 7-20.
- Portes, A.
- 1973, "Modernity and Development: A Critiqu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8, pp. 247-279.
- 1976, "On the Sociology of National Development: Theories and Issu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1, pp. 55-85.
- Skocpol, T.
- 1977,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5, pp. 1075-1090.
- Skocpol, T. and E. K. Trimberger
- 1978, "Revolutions and the World-Historical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B. H. Kaplan (ed.), *Social Change in the Capitalist Econom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pp. 121-138.
- Smelser, N. J.
- 1973, "Towards a Theory of Modernization," in A. Etzioni and E. Etzioni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Sequences*, New York: Basic Books, pp. 258-274.
- Smith, A.
- 1974, "The Integration Model of Development," in R. Mortimer (ed.), *Showcase State*, Sydney: Angus & Robertson, pp. 27-47.

Spengler, J. J.

- 1961, "Theory, Ideology, Non-Economic Values, and Politico-Economic Development," in R. Braibanti and J. J. Spengler (eds.), *Tradition, Valu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Durham : N. C. Duke University Press, pp. 1-56.

Sunkel, O.

- 1971, "Underdevelopment, the Transf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tin America University," *Human Relations*, Vol. 24, No. 1, pp. 1-18.

Taylor, J. G.

- 1974, "Neo-Marxism and Underdevelopment - A Sociological Phantas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 No. 1, pp. 5-23.

Wallerstein, I.

- 1974, *The Modern World System I*, New York : Academic Press.  
1979,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The Modern World System II*, New York : Academic Press.  
1982,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s :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in H. Alavi and T. Shanin (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Developing' Societies*, London : Macmillan Press Ltd., pp. 29-55.

Webster, A.

- 1984, *Introction to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London : Macmillan Press Ltd.

## Summary

#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Development Theories

Dai-Yeun Jeong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Che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ociology has been concerned with social development from its beginning. The founding fathers were driven to adopt very abstract concept of social development, with an implication that the development of society is presented as a progression from simple to complex forms by means of continuous process of growth and specialization. Their theories are called classical evolutionary theories.

In twentieth century, another stream of evolutionary theory, which is called neo-evolutionary theory, emerged. The theory took its cues from the classical evolutionary models, suggesting that the process of development occurs in stages, each stage of differentiation earmarked by novel patterns of integra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focus of social development was given to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particularly the Third World who experienced direct or indirect colonial domination. The point of departure for debate was why among them some countries show impressive rates of development, others stagnated or declined. However, different theories emerged according to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analytic methods. Following Kuhn's account of paradigm change, the emergence of social development theories could be diagrammed as Figure 1.

This paper reviewe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each social development theory and appraised the theories critically, with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on a comparative basis.

<Figure 1> The Emergence of Social Development Theories

